

왜곡된 교육현장의 황폐화한 인간상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80년대는 교육운동에서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주체들의 자각과 실천은 교육의 제반문제들을 우리사회의 전면에서 내세우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이 책은 왜곡되고 파행으로 얼룩진 우리 교육현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눈을 통해 솔직하고도 사실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소설이다.

우선 작가는 이 책에서 많은 부분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왜곡된 교육현장의 모습과 황폐화된 인간성을 보여주는 데 할애하고 있는데, 국어시간에 배운 것이 은유체, 건조체 밖에 없어 편지 하나 제대로 쓸 줄 모르는 봉구, 장학사가 오니까 특활교육을 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부서조차 모르는 아이들, 시험 잘보는 요령을 강의하는 담임, 오로지 성적만을 위해 보충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그들이다. 또한 학생이 죽어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진수, 같은 학급의 동료가 퇴학당하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난민 하나가 굶어 죽는 정도밖에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 은주, 그리고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위해 결국은 자식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은주 부모님의 모습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이란 허울 아래서 행해지는 입시위주의 교육의 폐해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작자는 돈봉투 때문에 고민하는 진수의 어머니, 교사직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민호의 고모, 학생들의 수학여행비를 가지고 교장 선생의 선물을 사는 교무주임의 모습 등을 통해서 교육계 내부에 존재하는 고질적인 비리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행위와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등도 약간씩 말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이 소설은 한 학급의 학생들, 그리고 그와 연관된 학부모, 그의 여러 선생들이 보여주는 갖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교육현실이 안고 있는 많은 병폐들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의 교육현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으며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결하고 있다. 몇몇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고민과 나름대로의 교육방식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

는 작가의 마음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전달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물론 거창하게 교육의 구조적 모순과 그 해결책에 대한 논의 자체를 소설에서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독자에게는 단순한 한 학생의 죽음 앞에서 코끝이 찡해오는 정도의 가슴앓음, 혹은 단편적인 분노나 느끼게 해줄뿐 위로를 받는대거나 희망을 가지게 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에서 작가의 소박한 의도마저도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김미숙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5-13호

딤스

이 책은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채 혼자만의 세계속에 갇혀 지내던 작은 소년 딤스가 그 고립의 세계를 깨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딛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사회적인 성공을 바라던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능력있고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인 아버지 사이에서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딤스는 정신박약아였다. 그는 부모들의 수치였고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부모들 스스로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했다. 그러나 딤스는 상호작용으로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여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습득한 것으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줄 아는 능력있는 아이였다.

부모의 손에 의해 액슬린 박사의 놀이방에 떠맡겨진 딤스는 액슬린의 객관적 관찰에 바탕한 인내력 있는 치료법과 적절한 환경조성에 의해 변화되어가고 그 변화에 힘입은 어머니는 딤스를 다시 찾기를 원한다.

이 책은 액슬린 박사의 놀이방을 떠난 딤스가 건강한 소년으로 자라나서 얼마나 충실히 학교생활을 영위해나가는가에 대해 액슬린 박사에게 보낸 편지로 끝맺음을 한다.

아이들은 어떠한가다라는 식의 객관적인 규정은 그다지 쉽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흔히 소유주라 일컬어지는 성숙한 인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심어지는 '소유주의 싹'이 어린이가 아닐까. 그 싹에서 어떤 꽃이 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내재된 빛깔과 향기를 마음껏 내뿜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은

온전히 어른들의 몫일 성싶다.

영태부터 부모에게서 거부되고 태어나서도 수치와 슬픔의 대상으로 대해지는 자신을 감당해내고, 상처받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없이 안으로 안으로만 파고 들어야 했던 이 책의 주인공 딤스의 고독, 두려움 때문에 이 땅의 부모들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으로 돌아온다. 아이는 이기적인 부모를 위한 장식품이 될 수는 없으며 그들의 수치가 되어서도 안된다. 아이는 단지 아이 자신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할 따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 책은 일러준다.

어른들이 지시하고 규정하는 대로 아이들은 자라기 마련이라거나 누구를 대하는 일정한 틀로 사람을 평가하려드는 사람에게 이 책 「딤스」는 권해보고 싶은 책이다. 물론 자폐아를 치료하는 데 탁월한 본보기가 되는 액슬린 박사의 태도와 치료과정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성필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9-9호 · 회사원

한석청의 「아사달」

씨는 쇠질 수 없는 꿈의 색기들을 그린 「아사달」은 조국의 통일 그 이후를 그린 통일가상소설이다. 작가 한석청의 처녀작인 장편 「아사달」은 그가 작가후기에서 밝힌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민족 통일에 대한 환상 뒤편에 숨어 있는, 밀어닥칠지도 모르는 모순과 갈등을 그리고 있다.

통일의 종이 울리는 그날, 한반도는 온통 환희와 감격의 물결로 가득찬다. 군사분계선은 국민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깡깡이 놀이를 하며 '팔짝 팔짝 발을 옮겨 놓는' 한갓 금으로 변하고, 판문점 일대는 아사달공원과 녹두공원이 만들어져 통일의 성지로 변해서 신혼부부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된다.

민족통합연구소 연구원 영준과 연구소내 도서관 사서인 개성처녀 순옥은 각기 약혼녀와 사귀는 사람이 있지만 점점 가까워진다. 영준은 통일기념마라톤대회에서 전문적인 마라토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위를 한 선수와 경합을 벌일 만큼 자기 싫어하고, 통일을 앞당긴 민중통일꾼들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이목을 끌기 원하는 야심만만하고 이기적인 젊은이이다. 한편 연방국가인 새로운 조국의 수도로 개성이 확정되면서 개성이 고향인 문산의 자본가 허

민수(영준의 아버지)를 비롯한 남한의 자본가들의 막대한 자본이 '통일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경제를 잠식하게 된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북의 공장들도 공동소유, 공동분배의 원칙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변모한다. 허민수가 경영권을 장악한 개성 은천벽돌공장은 사로청, 노동조합에 속한 젊은 노동자들의 불만으로 가득찬다. 노동의 신성함을 믿고 헌신하던 노동자들이 남쪽의 막일꾼으로, 유흥업소로 빠져나가고 개성은 통일 전에는 없던 갖가지 혼란에 휩싸인다. 허민수의 후원으로 짓고 있던 개성시내 성당에서 안전사고로 고등중학생인 한 소녀가 숨지게 되자,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은 노동자와 학생들의 통일모순의 극복을 주장하는 시위가 번진다. 결국 연방국가보위부의 비밀작전으로 압록강 국경지역에 중국인민군과의 지역분쟁이 발생하여 한반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며 소설은 끝이 난다.

작가 한석청은 분단모순의 일차적 극복은 통일로 이루어지나 그 완전한 극복이 없는 통일은 또다른 통일모순으로 분출될 것을 경고한다. 「아사달」은 우려되는 모순과 갈등을 작가의 상상력의 범위 안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그려내었다. 그러나 소설의 주인공인 남남북녀의 통속적인 애정행각은 통일모순의 또다른 측면을 부각시키긴 하였으나, 소설의 전반적인 재미를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하였다. 통일모순의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설적 재미를 보강한 새로운 통일소설을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김현정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24-64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초행길의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그 버스의 노선표를 살펴보는 일은 많은 경우, 무의미하다. 지적도의 능선표시처럼 그려진 버스노선표만으로는 그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인화의 첫 장편소설인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세계사)는 그 등장인물들을 따라가다보면 마치 시골버스의 노선표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소설은 모두 18장으로 나뉘어 있고, 모두 6명의 화자가 등장, 각 장마다 일인칭으로 서술되고 있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은우는 레지던트 과정을

포기한 의사 출신의 신예 소설가로 첫번째 장편소설을 쓰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 소설은 소설 속의 한 화자인 이은우가 쓰고 있는 소설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특징 중의 하나는 형식이다. 즉 "등장인물이 모두 '나'로 시작하여 각 장마다 화자가 바뀌는 형식이라니. 이건 도대체 연작소설도 아니고 정말 생경하기 짝이 없는 형식" (211면)이다. 이는 작품 속의 평론가 박문도가 한 말이지만 - 결국은 작가의 말이기도 하다 - 어쨌든 작품 밖의 평론가에 의해서 "낭떠러지로 던져질" (211면) 지도 모를 이 작품에 대한 안전장치쯤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식적인 실험 외에도 이 소설은 소설 속에서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대답의 서로 다른 극에 박문도와 이은우가 서 있다. 즉 박문도는 "소설은 천박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야말로 통속적인 거, 박인환 식으로 말하면 낡은 여성지의 표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구"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은우는 "침묵하기 위해 말해지는 언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대답은 두 사람의 논쟁에서가 아닌, 또다른 화자인 정임의 독후감에서 찾아진다. 결국 "하잘것 없는 사랑이야

기 하나도 소설이 되어 철학적인 해석에 감싸 이자 어떤 감격적인 광채를 발하는 것"에서 융합된 작가의 소설관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 소설은 몇가지 모험적 실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역시 숨가쁘게 진행되는 문장에서 찾아질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작가가 후기에서 말한, 사랑과 경멸의 대상인 '나의 세대'에 대한 애정과 비판 어린 통찰력을 들 수 있겠다.

김찬모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115-10

「아주 작은 세상」

보통사람들이 이른바 '지식인' 집단에 대해 갖는 선입관은 대체로 비슷하다. '白面書生'이라는 말이 가리키듯 책에 파묻혀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따라서 경험도 없는, 현실적으로는 '쑥맥'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시선이 지식인들에 관한 가장 부정적인 선입관이라면, 날카로운 지성으로 사물과 인간을 관찰하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올곧은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는 예의 선입관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경우다.

그러나 「아주 작은 세상」(데이비드 로지 지음, 이광식 옮김, 영웅)에서 묘사되는 지식인들은 이러한 상반된 선입관 모두를 통째로 뒤엎기에 충분한 행동들을 보여준다. 지식인 사회라는 하나의 '아주 작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천태만상을 그리고 있는 이 장편소설은 희극 풍자소설이 갖는 가벼움과 재미를 느끼게도 하지만, 한편으로 지식인 사회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파헤침으로써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지식'과 '지식인'의 관계를 되물고 있다.

문학을 강의하는 교수로서의 저자 자신의 체험이 든든하게 밑받침된, 대학교수들의 사회 생활(교수사회)과 개인생활의 여러 단면들이 교차되는 이 소설은 주로 국제적인 학술세미나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점이 특징이다. 생존하는 구조주의의 대부로 불리는 한 노교수에서부터 그의 학문적 업적과 명성까지도 공식적으로 이어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각국의 문예비평 전공 교수들, 이제 막 교수 사회에 발을 디딘 이상주의적인 젊은 교수, 그리고 가족과 연인 등 그들 주변의 인물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세련된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세인의 눈에는 스캔들로 비칠 연애사건도 벌어진다.

이 소설은 지식인들도 명예욕, 물욕, 성욕 등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진정한 지식인이 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은 물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때로 좌절하고 때로 성공하는 모습들을 실감 있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긴 소설의 대미에서 중구난방의 '이론', 즉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무수한 이론들 자체의 존재의미를 묻는 젊은 교수의 등장은 아마도, 작가가 재치와 유머 속에 감춘 그의 지식인상의 원형을 암시하는 듯하다.

김수정

충북 청주시 운천동 704번지 25통3번

경력사원모집

본 출판사는 30년의 전통을 가진 이공도서 전문출판사로서 성실하고 경력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요항

모집부분	자 격
편집교정직	대출자로서 교정직 경력자(이공계통출판사 경력자우대함)
편집일반직	고졸 이상으로 출판편집 경력자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각 1통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제출기간 : 1992. 4. 18 까지(우편접수가능)
- 제출처 : 서울·종로구 명륜동 1가 45의 3
- 전화문의 : 762-4461(편집부)



도서출판 **文運堂**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1가 45의 3
762-6010, 6981/743-3504~5
762-4461, FAX: 745-0265

한글에 자신있는 분, 그리고 그만큼 외국어에 능하신 분을 찾습니다.

열화당은 스무 해가 넘도록 미술과 사진, 민속 분야의 책을 만들어 온 미술도서 전문 출판사입니다. 하루에도 이루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열화당은 참지식과 참정보를 담아내는 아무지도 맵시있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한편 한편의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책을 빛어낼 匠人을 찾습니다. 출판에 열의를 갖고 있으며, 책만드는 일에 관계된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또 남이 알아 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대학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남자일 경우 병역을 마친 자)로서, 자필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1992년 4월 20일까지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시거나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열화당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515-3141~3, 팩시밀리 515-3144